

# 민주 “추미에 티끌에 난리친 국민의힘, 박덕흠 제명하라”

###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국민의힘, 진상조사특위 구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미에 박덕흠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단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미에 장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한편, 박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받 빠르게 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신속히 제명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대량해고 논란과 관련해 “창업주로서 책임과 역할은 다해야 한다. 추석 전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내놓으라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 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더 단호한 조치를 잘못된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문제가 있는 꼬리라면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가동 명의를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

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과 관련,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 수수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사익추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국민의힘 윤창현 박덕흠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법사위, 공수처법 위법상태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국회의 ‘부작용’은 위법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가 법적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 선정’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논의하기 앞서 개정안이 나온 그 배경이 되는 법을 출범하지 않은 위법상태를 법사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영덕 “국민 서포터즈” 다양한 계층 고르게 선발돼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1일 “국민에게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가 특정인을 중박해서 선발되는 사례를 줄이고 더욱 다양한 계층에서 고르게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 명예기자단·모니터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명예기자단·모니터단’이 공모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인원 중 A씨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연속 선발됐고, B씨의 경우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발되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C씨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한 해만 빼고 네 차례에 걸쳐 선발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 지원, 현장 필요에 응답 못하고 있다”

#### 이낙연 대표 “코로나·수해 지역 고통 더 세심히 파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코로나19 및 수해 복구 지원 등과 관련, “정부 지원은 제도와 예산에 따라 이뤄지나 그 제도·예산이 현장의 필요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복잡하고 무거운 고통을 더 세심히 파악하면서 최대한 근접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통을 겪는 모든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수해나 코로나19의 고통은 복구도, 완화되지도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8월에 섬진강 범람으로 엄청난 수해를 당했던 전남 구례, 전북 남

원, 경남 하동도 갔다. 코로나19 위축된 서울 통인시장과 세종문화회관에도 들렀다”며 “기르던 소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고만 살다 하는 구례 할머니의 한숨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린다.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내야 한다는 공연 예술계의 하소연이 민기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추석 연휴에 만나고 모이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며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계획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회 등을 명예를 걸고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檢 기소권 남용의 폐해...사건 중지부 찍어달라”

####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중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사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연합뉴스

### 이형석 “전통시장 화재안전 ‘A등급’ 12.7% 불과”

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안전 ‘A등급’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1일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관련 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1665곳에 달하는 전통시장 중 가장 안전한 A등급 시장은 2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과 함께 일선 소방서가 관리하는 B, C 등급은 각각 774곳, 554곳이었으



며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D등급은 123곳, 소방청이 관리하는 E등급은 32곳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청양리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안전등급상 C등급, 청과물시장의 경우 D등급이었다”며 “소방청은 B, C, D등급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권력기관·정치개혁 TF 구성...“현안 신속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정치개혁 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 ▲민생 경제 TF(양향자 ) ▲사회적 참사 대책 TF(전해철 의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염태영 ) ▲산업안전 TF(박홍배 )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신세계안과

### 안과전문의

## 분야별 진료

- 노안 백내장
- 스마일 라식·라섹
- 녹내장
-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